

‘커리어 하이’ KIA 오선우 “찬스 때 치겠다”



시즌 7호 홈런 등 프로 데뷔 7년만에 존재감 폭발
이범호 감독 “좋은 길로 가는 게 보여… 응원한다”

“프로야구 선수로서 좋은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여서 응원해주고 싶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응원해 주고 싶다고 언급한 선수는 오선우다. 오선우는 올 시즌 부상 병동 KIA를 지탱하고 있는 새로운 축이다.

오선우는 인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9년 KIA 유니폼을 입은 프로 7년 차 선수다.

신인 때부터 매서운 방망이로 주목은 받았지만 거친 타격과 공격에 비해 부족한 수비로 많은 역할을 맡지는 못했다. 지난 시즌에는 1군 3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올 시즌에는 17일 경기 전까지 50경기에 나와 182타석을 소화했다. 앞선 5시즌 184타석에 출전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선우에게는 놀라운 시즌이다.

47개의 안타를 기록한 오선우는 7차례 담장을 넘기기도 했다.

시즌 첫 경기였던 SSG전에서 투런포를 날리면서 결승타를 장식했던 오선우는 이후 중요한 상황에서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6월 8일 한화 에이스 폰세를 상대로 1회부터 투런포를 장식했고, 이 경기에서 KIA는 연장 10회 승부 끝에 7-6 승리를 거뒀다.

삼성, NC를 상대했던 지난주 타격감이 떨어지면서 2개의 안타를 만드는 데 그쳤지만, 그중 하나가

팀의 승리를 부르는 홈런이었다.

오선우는 14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1회 3점포를 날리면서 9-8 승리 끝난 이 경기의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최근 좋지 못했던 성적에도 이범호 감독이 응원 의 메시지를 날린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이범호 감독은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데 고민하는 게 보인다. 좋은 길로 가는 게 보여서 응원해 주고 싶다”며 “늦게 스타트 한만큼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보여주고, 컨디션 조절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선우는 이범호 감독의 이야기처럼 팀 승리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오선우는 “내 홈런이 팀에 도움이 됐다는 게 기쁘다. 감독님께서 최근에 타격감이 안 좋지만 중요한 순간에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언급하신 걸 봤는데, 정말 중요한 때 홈런을 쳐서 기분이 좋았다”며 “팀에 도움이 됐다는 게 기쁘다. 목표가 그것이다. 초반에는 결과를 내야 시합을 나갈 있으니까 결과에 집중했었다. 지금은 여유가 조금 생겼다. 2~3타수 무안타면 불안했었는데, 한두 번 못쳐도 찬스 때 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홈런을 치려고는 안 하지만 찬스 때 강하게 승부하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앞선 NC전에서도 헛스윙 하더라도 무조건 돌리자는 생각으로 눈 감고 돌렸다(웃음). 앞에 형우 선배가 커브 커브에 삼진 당했고, 위즈덤이 슬라이더에 아웃됐다. 어려운 상대들 넘어왔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쉽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맞게, 팀에 도움이 되는 타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선우는 타순에 맞춰서도 맞춤형 고민을 하고 있다.

오선우는 “지금은 5번 타순에 들어가 있으니 중요할 때 쳐주자는 생각이다. 2, 7, 8, 9번이면 무조건 출루에 목표를 두는 데 지금은 중요할 때 쳐주는 게 낫다. 형우 선배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인드가 바뀌었다”며 “재미있는데 어렵고, 어려운데 재미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어’하다가 끝난다. 상대도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모습으로 존재감을 키운 만큼 상대의 대처도 달라졌다. 상대의 분석에 맞춰 오선우도 성장을 위한 갈림길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다.

오선우는 “가까운 곳에 공을 안 준다. 공을 뺀다. 원래는 실투가 많이 왔는데 상대가 공을 빼다 보니까 선에 걸쳐서 스트라이크가 된다. 어렵게 하다가 하나씩 뺐는데 선에 걸치면서 스트라이크존도 깨지고 그래서 최근에 타격이 떨어졌다. 거기에 흔들려서 삼진율도 올라갔다”며 “이걸 이겨내야 한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싸움인 것 같다. 싸워서 올라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수진의 줄무상으로 기회를 얻은 오선우가 발전의 시즌을 보내면서 KIA 타선의 한 축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전남 홈 관중 최다 증가… ‘플러스 스타디움상’ 수상

광양구장 2134명 늘어 평균 6177명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평균 관중 2134명이 증가하면서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수상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1~13라운드를 평가해 풀 플러스 스타디움상, 스타디움상, 팬 프렌들리 클럽상, 그린 스타디움상 수상 구단을 발표했다.

전남은 지난 시즌 평균 대비 관중수가 가장 증가한 구단에 돌아가는 ‘플러스 스타디움상’ 주인공이 됐다.

지난 시즌 평균 유료 관중 4043명을 기록했던 전남은 올 시즌 2134명이 증가한 6177명의 관중을 광양축구전용구장으로 불러들였다.

잔디 교체 공사로 개막 후 10라운드까지 ‘원정 10연전’을 펼쳤던 전남은 5월 11일 성남FC와의 11라운드 경기를 통해 홈 개막전을 치렀다.

이날 7975명의 관중을 동원한 전남은 2-1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의 응원에 화답했다. 전남이 상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이어가면서 홈 관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K리그2 전체적인 흥행도 성공적이다.

K리그2는 지난해 90만 1699명의 누적 관중으로 단일 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13라운드까지 40만 9323명이 경기장을 찾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삼성전은 1~13라운드에서 진행된 7번의 홈경기에서 평균 1만1626명의 관중을 동원해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한 구단에 돌아가는 ‘풀 스타디움상’을 차지했다.

팬 친화적인 활동을 한 구단에 수여되는 ‘팬 프렌



전남드래곤즈가 가장 높은 평균관중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K리그2 1~13라운드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1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충북청주와의 경기에서 전남팬들이 머물러 응원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들리 클럽상’은 서울이랜드의 몫이 됐다. 서울이랜드는 1차 심사위원회 평가(40%), 2차 그룹별 투표(기자단 40%·팬 20%)를 통해 94.4점을 받았다.

공식 오프라인 스토어 ‘레슬업’ 개점, 팬 좌석 선택의 폭을 넓힌 ‘컴포테이블석’ 신설, 어린이날 ‘이랜드 키즈 브랜드 페스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팬 프렌들리 클럽상’ 2위는 성남FC(89.8점), 3위는 부천FC(80.8점)다.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한 구단에 돌아가는 ‘그린 스타디움상’은 천안시티FC가 받았다.

천안 홈구장인 천안종합운동장은 천안도시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기감독관 평가(50%)·선수단 평가(50%)를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 홈구장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산아이파크의 홈구장 부산구덕운동장이 그 뒤를 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승리가 절실해’ 광주FC, 제주 원정

18일 K리그1 19라운드…서울에 패해 8위로 하락

광주FC가 제주로 가서 순위 싸움의 새 출발선에 선다.

광주FC는 1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 FC를 상대로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승리가 간절한 광주다. 광주는 A매치 휴식이 이후 치른 지난 라운드 FC서울과의 경기에서 1-3패배를 당하는 등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광주가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왔던 상대였던 만큼 아쉬움은 컸다.

앞선 패배로 승점 2점 차로 쫓기고 있던 서울에 6위 자리를 내준 광주(6승 6무 6패·승점 24)는 1경기를 더 치른 FC안양(7승 3무 9패·승점 24)에 득점에서 밀리면서 8위가 됐다.

이번 원정길에서 만나는 제주는 6승 4무 8패(승점 22)의 성적으로 광주에 이어 9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다시 또 순위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광주는 무승 부진을 털고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앞선 서울전에서 선제골을 장식하는 등 1골 1도움의 활약을 한 정승원을 막지 못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52%의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팽팽한 승부를 했다. 8개의 슈팅도 시도하면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부상으로 인한 전력의 변화가 있는 상황, 팀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선수들이 있다.

이정호 감독은 앞선 서울전에서 안와골절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수문장’ 김경민을 대신해 ‘루키’ 김동화에게 골키퍼 자리를 맡겼다. 진시우, 홍용준도

선발 출장에 어필 무대를 가졌다.

여기에 김진호가 부상으로 빠진 수비진 강화를 위해 울산HD에서 심상민을 임대 영입했고, 서울전 교체 멤버로 투입하면서 전력 옵션을 넓혔다.

이번 원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헤이스다.

현신적인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헤이스는 앞선 서울전에서는 5호골도 장식했다. 전반전부터 부진한 골대를 두드렸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 종료 직전 골을 터트렸다.

지난 시즌까지 제주 유니폼을 입었던 헤이스는 지난 4월 6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그는 후반 종료 직전에 팽팽했던 ‘의균형’을 깨고 광주의 승리를 이끌었다. 헤이스는 또 다른 원정팀이 제주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 주역을 맡곤다.

광주는 최근 제주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지지 않으면서 승점을 더했었다. 광주가 승리로 제주원정 무패행진을 잇고 순위 싸움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타니, 663일만에 투타 겸업…1이닝 1실점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663일 만에 두 개의 칼을 동시에 꺼냈다.

‘이도류’ (二刀流·투타겸업)로 메이저리그(MLB) 생활을 시작한 오타니는 팔꿈치 수술과 재활로 1년 10개월 동안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미국프로야구 MLB 홈 경기에 선발 투수이자 1번 타자로 출전했다.

내셔널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1번 타자로 출전한 건, 1901년 짐 존스, 1953년 엘빈 다크(이상 뉴욕 자이언츠)에 이어 오타니가 세 번째다.

투수 오타니의 성적은 1이닝 2피안타 1실점이다.

오타니는 공 28개를 던졌다. 스위퍼(10개), 직구(9개), 싱커(8개), 스플리터(1개)를 섞어 던졌고, 최고 구속은 시속 161km이었다.

1회초 첫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에게 초구 시속 157km의 싱커를 던진 오타니는 풀 카운

트 점전 끝에 우전 안타를 맞았다.

루이스 아라에스 타석에서 폭투로 타티스 주니어를 2루로 보낸 오타니는 아라에스에게 중전 안타를 내줘 무사 1·3루에 몰렸다. 매니 마차도가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쳐 오타니는 복귀전에서 1점을 내줬다.

오타니는 개빈 시츠를 2루수 앞 땅볼, 산더르 보하르츠를 3루수 앞 땅볼로 요리하며 1회를 끝냈다.

오타니가 MLB 경기에서 투수로 등판한 건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3년 8월 24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 이후 663일 만이다.

2023년 9월에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2024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계약했다.

다저스와의 계약 첫해에는 지명타자로 뛰며 159경기 타율 0.310, 54홈런, 59도루, 130타점을 올리며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타자에 전념해도 MLB 최초의 50홈런-50도루 기록을 세우고, MVP를 수상했지만 오타니는 투타겸업 복귀를 열망했다. /연합뉴스